

기관지 확장증

—악화되는 것만 막을 뿐, 회복할 수 없어 예방이 중요—

심 성 규 / 청송건강정보자료원 도서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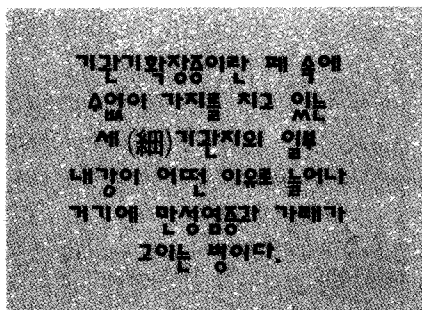
기관지 확장증이란?

의학선진국에서는 최근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 기관지확장증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기관지확장증이란 폐 속에 수없이 가지를 치고 있는 세(細)기관지의 일부 내강이 어떤 이유로 늘어나 거기에 만성염증과 가래가 고이는 병이다. 기관지확장 환자들은 이로 인해 가래와 함께 항상 기침을 달고 살게되며 심할 땐 주변의 혈관까지 염증이 침범해 폐결핵환자처럼 각혈을 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 병으로 일단 한번 확장된 기관지는 더 이상 악화되는 것만 막을 수 없을 뿐 원래 정상 상태로 돌이킬 수 없어 폐렴등 특히 호흡기감염의 예방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관지확장증에 걸리게 되면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기관지감염과 화농성객담을 배출할 염려가 크므로 홍역, 볼거리, 폐렴등의 감염질환의 예방에 철저할 것과 흡연을 삼가도록 당부한다. 특히 요즘처럼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절기일수록 호흡기보호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태

기관지확장증은 감염성질환이 많은 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후진국병이다. 홍역, 볼거리등 이 병의 원인이 되는 감염질환을 어려서 철저하게 예방하지 못한다면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역사업이 부진했던 5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어린시절을 보낸 50대이후 장년층에서 비교적 기관지 확장증환자가 많은 편이며 여자보다는 남자에게서 발병률이 약간 높다.

또한 과거에 폐결핵을 앓은 경험이 있

는 사람도 그후 기관지확장증을 합병한 경우가 많다. 한때 폐결핵이 사회문제가 됐던 30~50년대 사이에 청소년기를 보낸 노장년층에 기관지확장증환자가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관지확장증환자의 20~26%가 폐결핵의 후유증으로 기관지 내강일부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최근에는 백일해, 볼거리, 홍역, 폐렴 등 어린이감염 질환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대기오염, 흡연인구의 증가등으로 성인층에 많이 나타나는 만성폐쇄성 기도질환(COPD)에 의한 기관지확장증환자가 늘어나 새로운 발병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COPD 환자의 약 30%는 기관지확장증을 합병하고 있다.

원인

감염에 의한 2차적발생 또는 선천성질환, 전신질환으로 발생

기관지확장증은 기관지폐쇄나 감염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하거나 선천성질환 또는 전신질환의 결과로 발생한다. 기관지감염은 인플루엔자 폐렴이나 결핵과 같은 호흡기질환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어린이들의 경우 백일해나 홍역을 심하게 앓다가 폐렴이 합병되어서 발생하거나 레스피라 포리신시티알 바이러스 감염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의 기관지는 어른의 것에 비해 안지름이 작고 공기와 함께 들어마신 먼지가 세균을 기관지점막에 흡착시켜 분

비물과 같이 특유의 섬모운동으로 후두 쪽으로 내보내는 힘이 약하다. 때문에 폐렴이나 감기따위로 기관지염에 걸리면 기관지 말단의 극히 가느다란 세기관지의 내강이 막혀버리고 염증까지 가세해 그부위 앞쪽의 기관지가 늘어나기 쉽다. 어른들에게서 가장 많은 속발성기관지 확장증은 폐결핵, 폐염 따위의 병이나 폐결핵으로 흉곽 성형수술을 받은 뒤에 발병하는 수가 많다. 최근에는 기관지의 일부가 막혀 그 안쪽의 기관지가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증상

기침과 다량의 가래를 배출한다

소아기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10대에서부터 증상이 나타나는데 주증상은 기침과 다량의 가래를 배출한다.

특히 자고나서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확장된 기관지에 괴어 있던 가래가 나오게 되고 기침이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가래는 냄새가 심하며 고름과 같은 누런색을 띤다.

이 같은 병이 더 진행되면 기도 폐쇄를 일으켜 호흡곤란, 청색증, 만성폐쇄성 기도질환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에 대한 합병증으로는 반복감염, 농흉, 기흉과 폐농양이 흔히 발생한다.

예방

최근에는 기관지확장증이 꾸준히 감소되고 있어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

되고 있다.

예방법으로는 ●백일해와 홍역 예방 접종을 실시 ●유아 어린이 성인 모두 인플루엔자 폐렴이나 백일해에 감염되었을 경우 완전치유 ●유아와 어린이들이 작은 물체를 입속에 넣었다가 무의식적 또는 사고로 기관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는 ●장난감의 헐거워진 부분, 안전핀, 단추, 종이클립, 비닐봉지 등을 어린이가 닿지 않는 곳에 치우고 ●이물이 기관지로 들어가 배출되지 않을 때는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기관지확장증 환자들은 물구나무서기를 자주해 확장부위에 가래가 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가급적 물을 많이 마시며 증상악화 방지에 많은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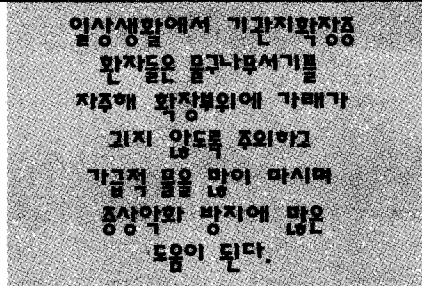
치료

항생제 발달로 최근 대부분 내과적 치료 시행

이 병에 걸린 사람은 가래와 기침을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특징적인 증상을 나타낸다.

어려서 폐렴따위를 심하게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기침과 가래를 수시로 반복하고 있다면 일단 이 병을 의심해도 좋을 만큼 기침과 가래는 기관지확장증의 주된 증세가 되고 있다.

치료 방법은 ●내과적 치료 ●외과적 치료 ●합병증의 치료가 있는데 50년대 전후에는 외과적 치료법이 대중을 이루었으나 항생제의 발달로 최근에는 대부



분 내과적 치료를 수행한다.

◎ 내과적 치료에는 세균감염치료, 기관지 분비물의 제거, 폐쇄성 환기장애의 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세균감염치료= 기관지확장증 환자의 주증상이 폐감염 증상이므로 항생제의 투여가 가장 중요하다.

보통 앰피실린 박트럼 등을 주로 사용하고 심한 경우에는 정맥주사로 세프트록심제를 사용한다.

●기관지분비물의 제거= 분비물을 말초에서 폐문 부위로 이동시키고 10~15분후에 기침으로 배출하도록 한다.

●폐쇄성 환기장애의 치료= 부신 피질 호르몬제를 기관지확장제에 반응이 있거나 호산구가 증가된 환자에 사용해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폐기능 검사상 기관지확장제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도 효과를 볼 때가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사용해 보기도 한다.

◎ 외과적 치료= 최근 항생제의 발달로 기관지확장증에서 수술의 필요성은 많이 감소되었지만 12개월이상 내과적 치료를 실시하였어도 증상의 호전이 없을 때에는 수술로 병소를 제거할 수도 있다.

●합병증의 치료= 폐렴등이 합병되었을 때에는 항생제를 투여한다.

객혈이 심한 경우에는 환자를 안정시키고 지혈제와 항생제를 투여한다.

요즘에는 기관지일부가 막혀서 확장증에 빠졌을 경우 가느다란 관을 허벅지의 혈관으로부터 폐에까지 밀어올려 뚫어주는 증재적방사선 치료방법이 이용되고 있고, 수술요법은 아주 초기가 아니면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방요법

기관지확장증이란 기관지 벽의 근육층과 탄력층의 파괴로 기관지의 일부재강이 확장된 상태를 말한다. 임상적으로는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기관지감염과 화농성객담이 배출되는 증후군이다. 이 질환의 증상은 병의 범위와 정도, 발병위치 및 합병증의 여부에 따라 다르나 주된 증상은 객담을 동반한 만성기침과 반복적인 기관지성 폐렴, 그리고 약 반수의 환자가 경험하는 객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신증상으로는 발열이나 체중감소, 회약감과 함께 수면중에 땀을 흘리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폐위, 폐옹, 해수(咳嗽)등의 증후군과 비슷한 질환로 인식하고 있다.

양방에서는 이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병인을 비이동성섬모증후군에서 찾고 있으나 한방에서는 폐의 기운에서 실마리를 풀어간다.

서양의학의 이론에 의하면 비이동성섬모 증후군이란 미세한 털모양의 섬모가 분포하고 있는 호흡기, 부비동, 척수, 뇌실, 난관, 정관 등에서 점막분비물을 밀

한의학에서는 이 질환의 병리를 폐기(肺氣)의 허(虛)에서 찾는다. 즉 섬모운동 기능이 약한 것은 폐기가 허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어내는 기능을 상실해 반복적인 호흡기 감염과 부비동염, 불임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이 질환의 병리를 폐기(肺氣)의 허(虛)에서 찾는다. 즉 섬모는 피부의 일종이고 피부는 폐가 다스린다. 따라서 섬모운동 기능이 약한 것은 폐기가 허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방의료에서 이러한 경우 폐기를 보하는 한약의 투여는 임상적인 치료효과뿐만 아니라 실험적으로도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치료의 목표는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과 병변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환자는 먼저 금연을 해야 하며 먼지 및 연기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하며 충분한 수분섭취와 함께 실내습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다.

이 질환은 특히 원인에 따라 여러가지 병증을 보이므로 병인을 캐는데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요구된다 하겠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한방요법은 환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卍